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실업 수당 신청 건, 23만9천건로 늘어
- WSJ: 생산자 물가도 떨어져... 물가 하락 추가 신호다
- WSJ Real Time Economics: 사무실 출근, 미중 정부 부채, 중국 수출 급등
- WSJ: 연준 5월에 금리 인상 할 듯... 침체 예상 불구
- The Economist: 미국, 노동자 수요는 많은 데나 공급은 팬데믹 이전 수준

[미국 금융]

- WSJ: 미국 은행 첫분기 힘들었다... 대형 은행만 제외
- NYT: 경기 둔화로 월가의 실적 저조했다
- Bloomberg: '오일 축소로 공급 부족 커질 예정'... OECD 예상

[부동산]

- Bloomberg: 성수기 다가오는데 맨하튼 임대료 사상 가장 높아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미 시정부들, 현대·기아 고소... 자동차 절도 파문 이후
- CNN Business: 아마존, 일부 UPS 반품에 대해 고객에게 수수료 부과한다
- Bloomberg: Delta 수익성, 여름 여행 시즌 앞두고 "올랐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경제]

Bloomberg: US Jobless Claims Increase to 239,000, Led by Jump in California

미 실업 수당 신청 건, 23만9천건로 늘었다

- 오늘 목요일 발표된 연방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4월 8일로 끝난 주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1,000건 증가한 239,000건을 기록했다. Bloomberg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예측한 중간 수치인 235,000건 신청건과 비슷했다.
- 이 자료는 연준이 1년동안 금리를 인상한 이후, 노동 시장이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된다.
-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고, 고용 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2월 취업자 수는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Bloomberg 기사

WSJ: Supplier Prices Fell in March, Adding to Signs of Moderating Inflation

생산자 물가도 떨어져... 물가 하락 추가 신호다

- 이른바 미국 경제의 공급 사이드를 반영하는 생산자물가 지수가 2월 비교 3월에 0.5% 하락. 지난 2020년 4월 이래 월간 단위로 최대 하락폭이라고 오늘 목요일 연방 노동부는 밝혔다.
- 작년 3월과 비교해서는 2.7% 하락해 작년 최고치 때보다는 크게 하락했지만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월에는 이 수치 즉, PPI(producer-price index)가 작년 동월 대비 4.9%를 기록했었다.

WSJ 기사

WSJ Real Time Economics: 사무실 출근, 미중 정부 부채, 중국 수출 급등

[로펌 Davis Polk, “주 3일 출근 안하면 보너스 삭감”]

- 급기야 사무실 출근과 봉급을 연계시키는 회사가 나왔다.
- 그동안에는 출근 시 피자 무료 제공, 또는 해직 등의 대응책을 쓴 회사들이 많았다. 고객으로 월가 큰 은행들이 포함된 Davis Polk & Wardwell는 매주 3일간 안 나오는 직원에게는 보너스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월간 구독 취소 늘고 있다]

- 디지털 멤버십 등이 새로운 구독자보다 취소 숫자가 연속 2분기 늘어났다. Netflix, Hulu and HBO Max 등은 작년에 취소율이 49% 늘었다. 비용 부담에 따른 것이라는 것.

[미국, 정부 부채 증가가 중국 앞선다]

- 미국과 중국의 국가 부채에 앞으로 수년간 더 늘어나는데 미국이 부채율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가는 고령 인구 대책, 클린 에너지 등에 재원을 투입하기 때문이라고 IMF는 밝혔다.
- 이로 인해 인플레이 압박은 더 커지고 중앙은행들의 인플레이 통제 노력을 약화되고 있다.

[중국 수출 가속화]

- 3월 중국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14.8% 증가했다.
- 공급망 개선 조짐에다 아시아와 유럽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WSJ: Fed Keeps May Interest-Rate Increase on Table Despite Expected Recession

연준 5월에 금리 인상 할 듯... 침체 예상 불구

- 침체 가능성이 올해 말 더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연준은 오는 5월 회의에서 강한 물가고와 타이트한 노동 시장 탓에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 두개 은행의 몰락과 그 여파가 우려되지만 규제 당국이 0.25% 상승을 감내할 정도로 은행 상황을 안정화 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WSJ 기사

The Economist: Where have all America's workers gone? 미국, 노동자 수요는 많은 데나 공급은 팬데믹 이전 수준

- 총 노동 인력 공급(일자리가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은 대략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노동 수요는 증가했다. 이 초과 수요는 전체 취업자의 약 3%에 해당하며, 이는 임금 상승을 일으켰다. 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GDP 성장 둔화는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공급 상황이 더 복잡하다. 팬데믹 동안 많은 근로자들이 휴가를 냈고, 주요 노동력 공급원 중 하나인 '이민' 또한 감소했다. 하지만 현재, 25-54세의 고령 노동자와 외국 태생 노동자의 노동력 참여율(LFP)이 거의 회복되었다. 이 두 가지 상황 모두 현재의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 가장 큰 공급 부족 문제는 결여는 미국인들이 나이가 들에 따라 직장을 떠나는 데 있다. 2019년 이후 65세 이상 인구는 인구의 16% 미만에서 거의 17%로 증가했다. 심지어 팬데믹으로 일찍 퇴직한 사람들은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00년 12.5%에서 2020년 초 20.7%로 증가했던 노인 미국인의 LFP(노동참가율)는 2016년과 같은 19.3%로 감소했다.
- 일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로 알려진 현상 중, 작업 강도를 줄이는 경향이 노동 시장을 줄인다고 생각한다. 워싱턴 대학 학자들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근무 시간이 확실히 줄었다.
- 그러나 대부분 조용히 퇴사한 사람들은 고소득 근로자인 반면, 가장 큰 노동력 부족은 기본 서비스 직종이었다. 2022년에는 평균 160만 명의 미국인이 코로나 19, 독감 혹은 다른 질병으로 인한 회복을 위해 최소 1주 이상의 결근을 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의 100만 명보다명에서 증가했다.

The Economist 기사

[미국 금융]

WSJ: Deposit Crisis Sets Up a Tough First Quarter for All But the Biggest Banks 미국 은행 첫분기 힘들었다... 대형 은행만 제외

- Silicon Valley Bank와 Signature Bank를 무너뜨린 예금 인출 사태는 대형 은행보다 소규모 은행에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혔다. 최근 몇 년 동안 수익성을 높여준 저비용 자금을 고갈시켰다.
- 이제 예상되는 대출 축소는 수익성을 더욱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으며 은행 채권 포트폴리오의 장부 손실로 인해 주주에게 자본을 돌려주는 능력도 약해질 수 있다.
- 모건스탠리 예상에 따르면 미국 최대 은행 13곳의 주당 수익 추정치를 2023년에는 4%, 2024년에는 15% 하향 조정했다.
- 반면에 중간 규모 은행의 경우 전망은 훨씬 더 나쁜데, 2024년 주당 수익 추정치는 각각 17%와 27%이다.

WSJ 기사

NYT: Dour Earnings Loom Over Wall St. as a Slowing Economy Bites 경기 둔화로 월가의 실적 저조했다

- 관련 조사 FactSet이 수집한 추정치에 따르면 S&P 500 지수의 기업들의 경우, 2023년 첫 3개월의 이익이 전년 대비 약 7% 감소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분기 연속 하락이 될 것이며, 2020년 팬데믹 초기의 침체기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될 것이다.
- 기업들은 투자자들에게 그들의 기대를 낮추라고 말했고, S&P 500에 속한 78개 기업들은 월스트리트의 평균 추정치보다 낮은 결과에 대한 가이드언스를 제공했다.
- 저명한 시장 전략가인 롭 템플(Rob Temple) 수석 전략가는 "기업 경영진이 종종 투자자들에게 불쾌한 충격 대신 유쾌한 놀라움을 줄 수 있도록 기대치를 관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낮은 예측치가 그렇게 널리 퍼진 경우는 드물다"라고 말했다.
- 연준은 1분기에 금리를 계속 인상하여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에 부담을 주었다. 하지만 기업들은 가격을 계속 올리는 것에 힘들어 하고 있다. FactSet의 자료에 따르면 따르면 S&P 500에 속한 기업의 경우 순이익 마진 또는 기업 수익에서 이익으로 끝나는 비율이 2020년 말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만약 기업들이 비용을 해결할 수 없다면, 그들은 의사 결정에서 보수적인 입장이 되어 지출을 줄이고 잠재적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여 경제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NYT 기사

Bloomberg: OPEC Data Show Oil Cuts Will Cause Widening Supply Shortfall

‘오일 축소로 공급 부족 커질 예정’... OECD 예상

- OECD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주 OPEC+ 국가들이 합의한 원유 공급 부족 때문에 세계 시장은 막대한 공급 적자를 기록중이면 해가 갈수록 더 확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파트너들이 발표한 오일 감축에 따르면 세계 시장은 4분기에 하루 약 200만 배럴의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부동산]

Bloomberg: Manhattan Rents Reach Record High With Busy Season Yet to Come

성수기 다가오는데 맨하튼 임대료 사상 가장 높아

- 3월 월평균 임대료는 4,17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월 최고치보다 25달러 상승한 것이며, 1년 전보다 거의 13% 상승한 것이다.
-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은 더 많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아파트의 공실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더라도 이 현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1년 중 가장 비싼 임대료 기간(일반적으로 7월과 8월)이 아직 남아 있어 기록적인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 이런 임대료 기록은 다른 새로운 최고점들을 동반했다. 지난 3월 신규 임대료의 44%를 차지했던 원룸의 중간 가격은 4,150 달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Cities Sue Hyundai, Kia After Wave of Car Thefts

미 시정부들, 현대·기아 고소... 자동차 절도 파문 이후

- 클리블랜드, 시애틀, 세인트루이스, 그리고 적어도 다섯 개의 다른 도시들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난 방지 기술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동차 절도 가능성을 높였고, 도시를 안전하지 않게 만들었다고 관계자들이 말했다.
- 기아는 소송이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자사 차량이 연방 안전 요건을 충족하며 회사는 제품의 품질과 무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들은 기아와 현대가 손해배상금으로 얼마를 지불하기 원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 도시 관계자들은 드라이버와 USB 충전기로 차량을 훔치는 법을 설명하는 영상으로 촉발된 도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두 자동차 회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450만 대의 기아 차와 380만 대의 현대 차에 영향을 끼친다고 도로교통안정청이 밝혔다.

- State Farm은 비용 상승을 이유로 일부 기아 및 현대 차량에 대한 신규 고객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기아와 현대 자동차를 임대하거나 구입한 사람들은 보안 기능이 없었다면 자동차를 팔지 말아야 했다고 회사들을 고소했다. 기아와 현대는 계속해서 무료 스티어링 휠 잠금 장치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 기사

CNN Business: Amazon will charge customers a fee for some UPS returns

아마존, 일부 UPS 반품에 대해 고객에게 수수료 부과한다

- 아마존은 UPS 상점에 물건을 반품하는 데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고객들이 반품을 줄이도록 새로운 조치를 시도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아마존은 빠르고 쉬운 쇼핑을 만들어냄으로써 비즈니스를 구축해왔다.
- 하지만 너무 많은 고객들이 반품 처리를 해온 것이 회사에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문제가 되었기에, 아마존은 홀 푸드, 아마존 프레스리 식료품점 또는 UPS 매장으로 물건을 반품하면 1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또한 아마존은 최근 웹사이트에 “자주 반품되는” 제품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아마존 대변인은 “제품 카테고리에 반품률이 상당히 높은” 제품 목록에 배지를 추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National Retail Federation의 데이터에 따르면 고객은 2022년에 구매한 총 상품의 약 17%인 총 8,160억 달러를 반품했다. 매출 10억 달러당 평균 소매업체는 1억 6500만 달러의 상품 반품을 발생시키는 것이기에 이는 소매업체에 큰 부담이 된다.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Delta Eyes Profit Beat Ahead of Crucial Summer Travel Season

Delta 수익성, 여름 여행 시즌 앞두고 “올랐다”

- 델타 항공사는 이번 분기 이익이 여름 여행을 위한 예약으로 인해 Wall Street의 예상치를 능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델타는 올해 첫 달에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2분기 수익이 주당 2달러에서 2달러 25센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loomberg가 집계한 1.61달러의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추정치(analyst consensus estimate)와 비교된다.
- 최고 경영자인 Ed Bastian은 업계 전반의 수요 속도가 팬데믹 이후 급증세에서 완만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과 평균 운임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사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투자자들은 특히 여름 여행 수요가 시작되기 전인 4월과 5월에 수요 감소의 징후가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현재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과 경기 침체

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런 압력에 저항해온 항공 여행 산업도 높은 운영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 소비물가 둔화에 달러 약세..."5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

"블랙록CEO "물가상승률 4% 이하 쉽지 않아...끈적한 인플레 오래갈 것"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한 것으로 나오며 달러 가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다음 달을 끝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4% 아래로 내려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엔화와 유로화 등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측정하는 달러인덱스는 전날 CPI 발표 직전까지 102.1 부근에서 움직였지만, 발표 이후 하락해 이날 오전 한때 101.445까지 떨어졌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